

Quine의 번역불확정성 논제

민 찬 흥 *

I

어떤 언어 L 을 이미 알려져 있는 언어 M 으로 번역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제공한다면 M 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방법을 통하여 L 을 배울 수 있다. 우리가 M -표현들의 의미를 알고 있고, L -표현들을 M -표현들로 번역할 수 있다면 우리는 L -표현들의 의미도 안다. 따라서 '의미를 안다'는 말이 어떻게 이해되든 간에, 체계적인 번역론(theory of translation)은 일종의 의미론(theory of meaning)이다. 물론 한 번역론이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 번역의 대상이 되는 언어, 예컨대 L 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L 이 번역되는 언어 M 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번역론은 자율적인 의미론이 되지 못한다." 이점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의미'에 대해서 말할 때, 거기에는 두가지 계기가 포함된다. 첫째, "봄은 더 크다"라는 표현이 무의미하다고 말할 경우에서 처럼 어떤 언어적 표현의 유의미성(meaningfulness)이 우리의 관심사항일 수 있다. 이 경우에 의미의 문제는 어떤 표현이 유의미한가를 가려주는 기준에 관한 문제이거나, 유의미한 표현이 유의미하게 되는 것은 그 표현의 어떤 속성 때문인가를 묻는 '유의미성'의 의미의 문제가 될 것이다. 물론 이 두가지 문제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전자의 문제는 '유의미한 표현'의 외연을 묻고 있는데 반해 후자의 문제는 그 내포를 묻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두 물음간에 관련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둘째로, '총각'은 결혼 안한 남자를 의미한다고 말할 경우에 의미의 문제는 두 표현 간의 동의성(synonymy)문제로 귀착된다. 우리는 '총각'과 '결혼 안한 남자'를 동의어라고 부를 수 있듯이 '총각'과 'bachelor'도 동의어라고 말할 수 있다. 동의성 문제는 한 언어 내에서 (intra-linguistically)와 마찬가지로 두 언어 사이에서 (inter-linguistically)도 제기될 수 있다. 그렇다면 번역론은 언어적 표현의 동의성을 문제삼는 의미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번역론이 자율적인 의미론이 될 수 없다는 말은 두 표현 간의 동의성 문제는 표현의 유의미성에 대한 모종의 대답을 전제하고 있을 때에만 만족스럽게 대답될 수 있다는 말과 같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번역의 문제에 대한 고찰이 의미일반의 문제에 대해서 빛을 던져줄 수도 있다. 우리가 Quine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의 번역불확정성 논제가 바로 그러한 경우인데, 그에 따르면 L 을 M 으로 받아들인다면 그의 번역불확정성 논제가 바로 그러한 경우인데, 그에 따르면 L 을 M 으로 번역할 때에 발생하는 번역불확정성은 두 언어가 너무나 달라서 생기는 번역의 어려움이나 불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어려움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번역불확정성은 L 자체의 본질적 속성으로서 사실상 M 의 특징과는 무관한 것이다." 물론 Quine의 번역불확정성 논제가 그의 행태주의 언어관으로 부터 옹호되고 있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가 번역이라는 작업, 그것도 원초적

* 한남대학교 철학과

- 1) Dummett, M., "What Is a Theory of Meaning?" in Guttenplan[1981], p. 98f.
- 2) Dummett, M., "The Significance of Quine's Indeterminacy Thesis" in Dummett[1978], p. 389. 이 점은 구태여 Dummett의 지적을 들지 않더라도 Quine 자신의 논증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일례로 Quine [1960], p. 27.

번역이라는 상황을 통하여 의미의 문제에 접근하려는 의도가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번역의 기준이 언어적 행동과 그 경향성들뿐이라는 게 너무 분명해지므로) 행태주의 언어관을 옹호하기 위한 한 방법에 불과한 것이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언어적 행태주의를 택한다고 해서 반드시 번역론을 통하여 의미론에 접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모든 번역론이 행태주의를 전제하거나 귀결로 갖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문제는 언어에 대하여 행태주의를 받아들일 경우가 반드시 번역불확정성에 이르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혹자는 행태주의에서 불확정성에 이르는 Quine의 논증은 바로 행태주의적 언어관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류논증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³⁾ 또 이명현[74]은 번역불확정성이라는 Quine의 귀결이 진짜 불확정성이 되는 것은 행태주의를 포기하고 직관적인 의미의 차이를 받아들일 때 뿐이므로 Quine의 논증은 사이비논증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Quine은 자신이 펼친 논증의 귀결부분에 가서 행태주의의 입장을 수미일관하게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⁴⁾

위 두 사람은 모두 Quine[1960]의 유명한 “gavagi” 예를 분석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gavagai’의 번역이 불확정적이 되는 것은 이 말이 문장이 아니라 단어 내지 문장이하의 구로 쓰였을 경우라는 점이다. 문장이 아닌 단어로서의 ‘gavagai’가 ‘토끼’로 번역될 수도 있고 ‘토끼임(rabbinhood)’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토끼단계(rabbit stage)’로 번역될 수도 있고 등등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단어의 지시체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 즉 지시불가해성(inscrutability of terms)의 논증이지 번역불확정성의 논증은 아니다. “Gavagai”가 한-단어-문장으로 쓰였을 경우에 불확정성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관찰문장이고 관찰문장의 번역은 행태적 기준에 의해서 확정될 수 있으며, 오히려 이런 관찰문장의 번역을 제대로 해주는가 하는 점이 올바른 번역편람의 하나로 꼽힐 수 있는 필요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Word and Object*에서 지시불가해성을 번역불확정성의 논거로 삼았던 Quine은 후에 “On the Reasons for Indeterminacy of Translation”에서 위와 같은 차이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⁵⁾ 물론 일상적인 의미에서 보면 단어의 번역도 번역이긴하다. 그러나 Quine의 언어이론의 틀 안에서 볼 때 지시불가해성이 곧바로 번역불가능성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우리가 의미의 문제에 있어서 문장의 우위를 받아들인다면 또 문장의 자극 의미가 그 문장의 경험적 내용의 전부라면, 올바른 번역에 대해서 자극의 의미 보존, 진리조건의 보존 이외에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지시의 불가해성으로부터 번역불확정성으로 가는 Quine의 논증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Quine은 번역불확정성에 대한 다른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는 번역불확정성의 근거로서 이론의 미결정성(underdetermination)⁶⁾을, 또는 그와 함께 검증주의 언어관을 들고 있다.⁷⁾ 따라서 번역불확정성 논제의 정당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미결정성 논제의 정당성 및 그 논제가 번역불확정성을 함축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론미결정성 논제는 전체론 논제와 수정가능성 논제의 귀결로 제시된다.⁸⁾ 사실 전체론 논제나 미결정성 논제만으로부터 번역불확

3) Searle, J., “Indeterminacy, Empiricism, and the First Person”

4) 이명현. “Quine의 원초적 번역의 불확정성론 : 그 비판적 검토”, 철학연구, 1974.

5) Quine, “On the Reasons for Indeterminacy of translation” in *Journal of Philosophy*, vol. 67, 1970, pp. 181~182

6) Quine, “On the Reasons for the Indeterminacy of Translation”

7) Quine, “Epistemology Naturalized” in Quine[1969], pp. 80~81.

8) Quine, “On Empirically Equivalent Systems of the World” in *Erkenntnis* 9 1975, p. 313

정성은 도출되지 않는다. 우리가 검증주의를 받아들여서 경험적 증거의 문제가 바로 경험적 의미의 문제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해도 이론미결정성 자체도 번역불확정성을 함축하지 않는다. Quine[1960]은 번역 불확정성 논제를 두 가지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데⁹⁾ 그 하나는 L 에서 M 으로의 번역에 있어서 불확정성을 말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한 언어 내에서 치환의 존재를 말하고 있다. 범례에 따라서 후자를 치환논제(permutation thesis)라고 부르기로 하자. Quine은 분명히 이 두 가지 주장을 동등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치환논제는 한 언어 내에서 개개 문장의 의미가 확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며, 과연 이러한 의미의 불확정성이 번역 불확정성을 낳느냐 하는 것은 별도로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다. 나는 치환논제를 이론의 미결정성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는 Dummett의 생각¹⁰⁾에 동의한다. 이론미결정성은 한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문장들 중에서 이론 문장들은 개별적으로 경험적 증거를 가지지 않으며 따라서 그 의미에 있어서 불확정적이라는 주장으로서 이론 문장의 의미의 불확정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는 의미의 불확정성 내지 이론의 미결정성은 Quine의 분석/종합이 불가분적이라는 “Two Dogmas” 이래의 Quine의 주장과 함께 고려될 때에만 번역불확정성을 함축한다고 본다. 우리는 먼저 분석/종합이 불가분이라는 주장을 고려에서 제외할 때 경험적 증거로부터 미결정된 이론들의 번역이 어떻게 확정적으로 번역될 수 있는가를 보이는 Dummett의 논증을 살펴보고 분석/종합의 불가분성이 어떻게 번역불확정성을 논증하는 데 개입하게 되는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Quine[1960]은 원초적 번역의 상황에서 번역자가 자신의 번역이 옳은지 그른지 검사할 수 있는 기준은 행태적인 기준 뿐임을 천명한다. 그리고 그는 그 행태적 기준들 중에서도 번역을 시도하기 위한 열쇠가 되는 것으로 “동의와 부인(assent and dissent)의 인지”를 들고 있다. 원주민의 어떤 행동이 동의를 표시하고 어떤 행동이 부인을 표시하는가 하는 것을 번역자는 보통의 귀납과정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다. 물론 동의와 부인은 문장에 대한 태도이다. 따라서 Quine이 상정하고 있는 원초적 번역에 있어서 번역의 단위는 문장이다. 여기서 Quine은 문장에 대한 행태적 반응을 일단 두가지로 유형화하고 있는 셈이다. 문장에 대한 이 두가지 태도를 배우는 일은 번역자에게 있어서나 언어를 처음 배우는 아이에게 있어서나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물고 동의/부인하는 반응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면 관찰문장들을 배울 기회란 언어를 배우기에, 또는 번역을 하기에 너무 불충분해지고 만다.¹¹⁾ 문장들에 대한 태도를 두가지로 한정하는 것이 옳은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Word and Object*에서 보여준 도식이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음을 Quine도 인정한다. 행태적 기준으로서의 문장에 대한 태도로 말하자면 번역자가 물었을 때 반드시 어떤 대답을 들으리라는 보장이란 없으며, 게다가 원주민이 대답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동의나 부인 중의 하나일거라고 여길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다. 원주민 자신이 동의도 부인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문장에 대해서 동의도 부인하지 않는 중립적인 태도를 하나더 고려하면 (Quine은 이것을 *abstention*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번역자는 원주민의 언어에서 이치논리적인 접속사에 대응하는 말을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문장에 대한 동의와 부인의 표시를 알아내는 것이 언어를 배우거나 번역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고리가

9) Quine, *Word and Object*, p. 27

10) Dummett, “The Significance of Quine’s Indeterminacy Thesis” in Dummett [1978]

11) Quine[1973], *The Roots of Reference*, pp. 45~49

된다는 점은 인정하고 넘어가기로 하자.

Quine[1960]은 의사소통의 단위가 문장이라는 점과 그 문장에 대한 두가지 태도를 언어적 행위들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부터 알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작하여 이른바 원초적 번역의 행태적 기준을 도출해낸다. 그것은 (1)관찰문장은 번역될 수 있다: (2)진리함수는 번역될 수 있다: (3) 자극분석적 문장들(과 자극모순적 문장들)을 알아낼 수 있다는 세가지 기준인데 여기서 번역자 자신이 bilingual인 경우에 (1)의 ‘관찰문장’은 ‘계기문장(occasion sentence)’으로 바뀐다.¹²⁾ 여기서 우리는 Quine이 제시하고 있는 행태적 기준이 적합한가를 물을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 진리함수가 과연 행태적 기준에 만의 거해서 번역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기준(2)의 적합성에 대한 의문이다. 또 Quine이 말하는 바 보통의 귀납과정에 대한 전통적인 문제제기는 위의 기준 전체에 대해서 그 적합성을 의문시한다. 그러나 우리가 위 기준의 적합성을 문제삼지 않고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 반대의 의문, 즉 위에서 열거된 기준이 과연 원초적 번역상황에서 번역자가 이용할 수 있는 행태적 기준을 완전히 열거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Quine이 목록에서 빠뜨린 기준이 있다면 번역의 기준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고 불확정성의 폭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한 한 Quine은 자신의 목록이 완전하다고 여기는 것 같지는 않다. Hintikka는 “language-game of searching and finding”이 동의/부인 이외에 또다른 행태적 기준이 될 수 있으며 그렇게 강화된 행태적 기준에 의해서 진리함수뿐 아니라 양화논리적 도구들도 번역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¹³⁾ 이런 지적에 대한 Quine의 반론은 Hintikka의 기준에 의해서 밝혀질 양화논리는 대입적 양화(substitutional quantification)이고 따라서 대입적 양화에 대한 자신의 반론이 Hintikka에 대한 충분한 반론이 될거라는 정도이다.¹⁴⁾ 나는 이 글에서 양화논리의 대입적 해석과 대상적 해석 간의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지는 않겠다. 단지 Quine이 주고 있는 번역의 행태적 기준의 완전함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정도로 그치기로 하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Quine이 제시하고 있는 번역의 행태적 조건들에 의해서 포착되는 부분은 바로 번역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며 확정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부분이라는 점이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번역은 올바른 번역이 아니고 따라서 번역불확정성을 논하는 데 있어서 고려대상이 아니다. 번역불확정성 논제 자체가 말하는 바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번역방식, 번역편람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그 편람들 사이에서 어느 것이 옳은 번역을 주는가 하는 물음은 대답될 수 없다는 것이다. 편의상 번역되어야 할 언어, ‘gavagai’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정글언어를 L 이라고 하고 번역에 쓰이는 언어를 M 이라고 하자. L 을 M 으로 번역하게 해주는 번역편람 중에서 위의 행태적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두 편람을 각각 S_1 , S_2 라고 하자. 이때 S_1 과 S_2 는 계기문장이나 진리함수어들의 번역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S_1 과 S_2 가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은 문장 이하의 단어와 귀절들에 대한 번역에 있어서이거나 아니면 지속문장의 번역에 있어서일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번역불확정성으로 논증해가는 길이 두가지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첫번째 길은 Quine이 *Word and Object*에서 택하고 있는 길로서 문장 이하의 표현들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번역불확정성이 성립하는지를 보여주는 길인데 이것은 바로 지시불가해성을 논증하고 그것이 곧 번역불확정성임을 보여주는 길이다. 그 두번째 길은 자극상황(stimulatory circumstances)에 의하여 그 의미가 곧바로 결정되지 않는

12) Quine[1960], *Word and Object*, p. 68. 그리고 Putnam, H., “The Refutation of Conventionalism” in his [1982]와 비교.

13) Hintikka, J., “Behavioral Criteria of Radical Translation” in Davidson and Hintikka [1960] pp. 70~77

14) Quine, “Replies” in Davidson and Hintikka, *ibid.* pp. 312~315

문장들, 즉 지속문장들이 확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논증하는 길로서, 가능한 모든 경험적 증거에 의해서도 하나의 옳은 이론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경험적 증거의 문제는 곧 경험적 의미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을 논증함으로써 이론문장들이 의미론적으로 불확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길이다.

지시불가해성의 논증은 Quine이 번역불확정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논증들 가운데서도 가장 명시적인 대목이다. L -단어 'gavagai'를 S_1 은 'rabbit'로 번역하고 S_2 는 'rabbithood'라고 번역했을 때, 자극상황에만 호소해서는 어느 번역이 옳은지 가려낼 수 없다. 특히 손으로 가리키는 일(ostension)로는 결코 밝혀질 수 없다. Ostension은 추상적인 단칭어와 구체적인 일반어도 구별해주지 못한다.¹⁵⁾ S_1 이 옳은지 S_2 가 옳은지 가리려면 L -언어의 개별화 도구들(individuative apparatus)에 호소해야 하는데 그 개별화 도구라는 것이 번역불확정성을 피할 수 없다. 예컨대 S_1 의 어떤 L -문장을 "이 토끼는 희다"라고 번역했고 이 번역이 L 화자의 모든 언어행위와 들어맞는다면 S_2 는 같은 문장을 "여기 토끼임의 한 예화는 흰(whiteness)의 한 예화이다"라고 번역할 것이고 이 번역 역시 L -화자의 모든 언어적 경향성과 들어맞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시불가해성이다. 관찰 문장들(또 경우에 따라서는 계기문장들)은 보편적이다; 그러나 단어와 지시는 개념체계에 대해서 상대적이다. 단어라는 개념 자체가 문화상대적인 것이다.¹⁶⁾ 위의 두 번역문장은 똑같은 자극의미를 갖는다. 두 문장은 자극동의이다. 그러나 두 관찰문장의 자극동의성은 'gavagai'와 'rabbit', 또는 'gavagai'와 'rabbithood' 간의 동의성은 커녕 두 단어가 동연적(coextensive)이라는 것도 보장해주지 못한다.¹⁷⁾

그러나 이 논증은 정말로 번역불확정성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 논증이 지시불가해성을 성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치자. 그러면 그것이 곧 번역불확정성의 성공적인 논증인가? 우리가 Frege에 따라서 단어에 대한 문장의 의미론적인 우위를 인정한다면, 그리고 Quine이 취하고 있는 것처럼 언어의 의미에 관하여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유일한 근거 내지 기준이 언어행위와 그 경향성뿐이라면 문장의 자극의미를 보전하는 번역은 우리가 번역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 아닌가? 의미의 문제에 있어서 문장의 우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단어의 의미는 그것이 문장의 의미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단어가 하는 역할에 의해서 이해됨을 인정하는 것이다.¹⁸⁾ 단어의 동의성은 문장의 동의성에 호소해서만 결정될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문장의 우위를 말한다는 것은 공허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단어 W 가 다른 단어 V 와 동의어라는 것은 W 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에 W 대신에 V 를 넣어도 언제나 동의적인 문장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⁹⁾ 그렇다면 위에서 예로 든 두 번역문장에서 'rabbit'와 'rabbithood'는 결코 동의어가 아니다. S_1 의 번역문장에 'rabbit' 대신에 'rabbithood'를 대입할 때에 동의적인 문장이 언어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점은 S_1 과 S_2 가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같은 자극의미를 가진 문장들을

15) Quine [1960]. *Word and Object*, p. 52.

16) Quine [1960], p. 53

17) Quine [1960], p. 54

18) Dummett. "The Significance of Quine's Indeterminacy Thesis" in Dummett[1978], p. 382. 또 Davidson, "Reality without Reference", "The Inscrutability of Reference" in Davison [1984], pp. 220~222, pp. 228f.

19) 이 정의가 단어의 동의성에 대한 유일한 정의라거나 최종적인 정의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사실 문장의 동의성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말하자면 긴 얘기가 된다. 게다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논의에 비추어 불가결한 얘기도 아니다. Quine, "Use and Its Place in Meaning" in Quine[1981], p. 51과 비교.

언기 위해서 서로 간에 문장의 다른 부분에서 “보상적인 조정(compensating adjustment)”²⁰⁾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하면 좀더 분명해진다. S₁문장의 ‘rabbit’를 ‘rabbithood’로 바꾸고도 이 관찰문장의 자극의미를 보존하는 번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S₂의 문장이 보여주듯이 문장의 다른 부분을 “교묘하게 조정해서 존재론의 변화를 보상해야”²¹⁾하는 것이다. 단어의 지시론은 존재론의 문제이고 따라서 Quine이 하듯이 지시불가해성을 존재론적 상대성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단어의 지시가 불가해하다고 해서 그것을 포함하는 문장들의 번역이 불확정적일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Davidson이 지적하고 있듯이²²⁾ 불확정적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쓰인다. 첫째, 문장의 진리치가 불확정적일 수 있다. Quine이 불확정성 논제를 통하여 밝히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것으로서, 어떤 문장들은 확정적인 진리치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불확정성, 문장의 진리치에 있어서의 불확정성이야말로 그것이 사실이라면 걱정할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 불확정성이 Quine의 주장대로 번역의 속성이 아니라 언어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의 비유대로 정말 “원초적 번역은 집안에서 시작된다”²³⁾면 불확정성이 적용되는 문장들의 범위에 따라서 이 논제는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우리의 신념에 대한 심각한 위협일 수 있기 때문이다.²⁴⁾ 둘째로, 두 번역편람이 모든 관찰증거와 양립가능하면서도, 즉 관찰적인 L-문장의 진리치에 대해서는 같은 번역을 주지만 그 문장을 자르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즉 S₁과 S₂가 어떤 L-표현을 단칭어로 보고 어떤 L-표현을 일반명사로 볼 것인가, 또는 L-언어의 양화도구는 어떠하며 L-언어의 골격이 되는 논리의 성격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 할 수 있다. Quine은 이런 점들을 문화상대주의 내지 언어상대주의적인 어투를 빌어서 표현한다.²⁵⁾ 셋째로, 논리적 형식이나 문장들의 진리치가 확정되었다고 해도 문장 이하의 L-표현들에 대해서 S₁과 S₂가 각각 다른 지시체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시불가해성인 것이다. Quine은 이런 몇 가지 경우들이 모두 번역불확정성에 해당된다고 여김으로써 지시불가해성을 논증해 놓고는 그것이 바로 번역불확정성의 논증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우리는 위에서 Quine 자신의 언어이론의 틀 내에서 지시불가해성이 번역불확정성을 함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며 하였다. 즉, 지시의 불확정성이 문장의 진리치의 불확정성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의 논의로 단어의 지시불가해성이 그것을 포함하는 문장의 번역불확정성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졌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이것으로 지시불가해성을 통한 번역불확정성의 논증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 지시체가 불가해하다는 것이 단어의 번역이 불확정적이라는 말로도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 역시 일종의 번역불확정성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설사 위에서 보여준대로 지시체의 번역이 확정적이 아니라는 사실이 문장의 진리치의 불확정성을 함축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지시관계가 확정적으로 번역될 수 없다는 사실자체가 일종의 번역불확정성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면이 없지 않다. 단어의 번역도 번역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이런 생각은 옳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의미의 문제에 있어서 단어에 대한 문장의 우위가 뜻하는 바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만 옳다. 단어에 대한

20) Quine, “Ontological Relativity” in Quin[1969], p. 29, pp33~34, p. 51과 비교.

21) Quine, *ibid.*, p. 47

22) Davidson, “The Inscrutability of Reference” in Davidson[1984], p. 228

23) Quine, “Ontological Relativity” in Quine[1969], p. 46

24) 이명현, *op. cit.*

25) 앞의 주 [16] 참조.

문장의 의미론적 우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단어란 그것이 문장에서 하는 역할을 때면 아무 기능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단어의 의미론적 특징이란 문장의 의미론적 특징들로부터 추상해서 얻어진다.²⁶⁾ Quine이 *Word and Object*에서 논의를 전개할 때에 문장의 의미론적 우위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²⁷⁾ 그러나 이때에 Quine은 문장의 의미론적 우위가 언어이론, 적어도 자신의 번역이론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서 '이때에'라고 말한 것은 후에 Quine[1970]은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gavagai 예는 기껏해야 단어의 불가해성의 예에 불과하며 문장의 번역불확정성의 예는 아니다. 문장으로서의 "Gavagai"는 자극동의성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유일한 번역을 가진다. 'Rabbit', 'Rabbit-stage', 'Undetached rabbit part'는 자극동의적이며 전체를 한-단어-문장으로 취급해서 서로 대치할 수 있다. gavagai 예는 문장의 번역불확정성에 대해서 단지 다음과 같이 간접적으로만 관련될 뿐이다: gavagai라는 단어를 담고 있는 어떤 긴 비관찰문장이 있어서 그것이 'rabbit', 'rabbit-stage' 등 중에서 어떤 것으로 번역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다른 문장으로 번역될 수 있으리라는 상상이 꽤 그럴법하다는 점에서 이 예는 번역불확정성과 관련된다.²⁸⁾

그는 지시불가해성의 논증이 번역불확정성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라는 *Word and Object*에서의 생각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언어의 의미에 관한 모든 증거는 문장에 관한 증거이다. 우리가 그 모든 증거를 고려해서 *L*을 *M*으로 번역하는 편람들 중에서 어느 것이 받아들일만한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고 해도 그때의 증거들은 지시 내지 존재론의 문제와는 무관한 것이다. 지시불가해성이 번역불확정성을 낳는 것은 위의 인용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단어의 치환이 다른 번역문을 낳는 경우 뿐이다.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관찰문장의 경우에 그 문장에 포함된 단어의 치환은 (1) 문장의 다른 부분의 번역을 조정함으로써 단어의 치환, 즉 지시의 치환을 보상함으로써 자극동의적인 문장을 낳거나, (2) 그러한 조정이 불가능해서 옳은 번역을 얻는 데 실패하게 된다. (2)의 경우는 예컨대 "이 토끼는 회다"는 *L*-문장에서 gavagai를 'tiger'로 번역하는 경우에 해당할 텐데, 이때에 이 *L*-문장의 "이~는 회다"는 부분을 아무리 조정해도 문제의 문장과 자극동의적인 *M*-문장을 얻어낼 수 없다면 이러한 편람은 번역의 행태적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편람이고 따라서 틀린 편람이다. 단어의 지시가 불가해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1)의 경우인데 이때에 문장의 번역은 확정적이다. 문장의 번역이 확정적이라면 더 이상 무엇을 걱정할 게 있는가? *L*-문장들의 번역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행태적 증거들이란 모두

26) 앞의 주 [18] 참조.

27) 이점은 Quine의 글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다. 특히 "Five Milestones of Empiricism"에서 그는 문장의 우위를 깨달은 점이 근세 이래 경험론의 변천사에서 가장 중요한 다섯가지 항목중의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Quine[1981], pp. 68~70) 그 공로를 J. Bentham에게 돌리고 있다. 물론 Dummett(*op. cit.*, p. 382)이나 김여수("환원적 분석")가 지적하듯이 Quine철학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문장에 대한 이론의 의미론적 우위를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또 Quine 자신도 자신의 전체론 논제를 앞의 다섯가지 변화중 하나로 꼽고 있다. 나는 의미론에 있어서 문장의 우위와 이론의 우위가 양립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그것이 양립할 수 있다면 그러한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도 없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의 논의는 이 문제와 무관하게 전개될 수 있다.

28) Quine. "On the Reasons for Indeterminacy of Translation" in *Journal of Philosophy* [1970] vol. 67, p. 182. 또 Quine "Indeterminacy of Translation Again" in *Journal of Philosophy* [1987] vol. 84, pp. 8~ 참조

문장에 대한 증거들이다. 그 증거들은 단어의 지시 내지 L -언어가 전제하고 있는 존재론과는 무관한 것들이다. 따라서 *Word and Object*에서 Quine의 말이 옳다면 그의 논증이 보여주는 것은 문장의 동의성이 그 문장에 들어있는 단어들의 지시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필자는 적어도 *Word and Object*에서 Quine은 불역확정성을 성공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이려고 했는데 이것이 옳다면 우리는 전혀 처음 대하는 언어 L 에 대해서도 그 L -문장들의 자극의미를 보존하는 번역을 줄 수 있다는 얘기이고 따라서 경험적 증거의 테두리 내에서는 L -화자들과 성공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 점을 인정하면서 Quine의 지시불가해성과 그것의 한 귀결로 제시되고 있는 존재론적 상대성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다음의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두 화자 간의 성공적인 의사소통이 두 사람 간의 존재론의 일치를 의미하지 않는다. 즉, 전혀 다른 존재론을 가지고 있는 화자들간에도 의사소통은 이루어질 수 있다.²⁹⁾

III.

지금까지 우리는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그것이 전혀 교섭이 없었던 두 언어간의 일이건 한 언어 내에서의 일이건 간에)의 가능성 여부가 그 언어의 지시구조와 관계없다는 결론이 지시불가해성과 문장의 의미론적 우위라는 두 논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귀결임을 논증해 왔다. 이것은 인간의 의사소통이 언어와 세계의 관계와 무관한 문제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언어가 언어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 언어가 세계와 가지는 모종의 관계성 때문이라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우리의 결론이 의미하는 바는 언어와 세계와의 교섭은 문장을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언어의 의미에 관한 이론에 있어서 진리론이 지시론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비록 단어의 지시를 통하여 문장 전체의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을 택한다고 해도 그런 설명방식, 그런 이론이 검증되는 것은 진리의 차원이다. 이점을 Davidson은 물리학의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다.³⁰⁾ “물리학은 관찰될 수 없는 미시적인 구조를 상정함으로써 거시현상을 설명한다. 그러나 이론이 검증되는 것은 거시적인 차원에서인 것이다.”

번역불확정성은 옹호하기 위하여 Quine이 제시하는 또 하나의 논증, 즉 이론미결정성을 통한 논증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Quine은 그의 *Word and Object*에서 번역불확정성을 치환논제를 동등한 것으로 내세우고 있다.³¹⁾ 치환논제는

한 언어 L 의 무한한 문장들 전체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치환될 수 있다: (a) L -화자들의 언어적 경향성 전체는 바꾸지 않으면서 (b)그 치환은 아무리 동치개념을 느슨하게 잡아도 결코 동치가 아닌 문장들을 대응시킨다.

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번역불확정성이 치환논제와 동등하다는 주장은 번역불확정성이 집안

29) 지시불가해성을 받아들이면서도 존재론적 상대성은 거부하려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Davidson, “The Inscrutability of Reference” in Davidson *op. cit.*)이야기는 좀더 복잡해진다. 그러나 존재론이 상대적으로만 의미있느냐 하는 문제를 접어들더라도 지시불가해성 자체가 이미 존재론적인 문제라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지시불가해성을 받아들이면서 지금까지의 논의에 동의하는 사람에게는 이 결론은 본문은 복잡한 단서에도 불구하고 잠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30) Davidson, “Reality Without Reference” in Davidson *op. cit.*, p. 222

31) Quine[1960], p. 27.

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는데 이 주장을 계기로 해서 Quine에게 있어서 번역의 문제는 의미론 일반의 핵심적인 문제로 된다. 같은 언어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에도 따지고 보면 일종의 번역과정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제 번역불확정의 문제와 치환논제 간의 관계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하자. 우리가 주의할 것은 치환논제가 말하는 바를 문장에 대한 것으로 한정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치환은 단어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고 단어의 지시에 대한 치환논제는 바로 지시불가해성인데 지시불가해성이 번역불가능성에 대한 성공적인 논증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앞에서 우리가 도달한 결론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치환은 문장에 대한 치환, 문장의 진리치에 대한 치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번역불확정성이 성립한다면 화자들의 언어적 경향성을 바꾸지 않으면서 서로 양립불가능한 L 에서 M 으로의 번역편람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S_1 과 S_2 가 그러한 두 편람이라고 하자.³² 이때에 S_1 에 의해서 L 을 M 으로 번역하고, S_2 에 의해서 M 을 다시 L 로 번역한다. 그러면 우리는 L 에서의 한가지 치환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S_1 이 L -문장 Q 를 M -문장 T 로 번역하는 데 S_2 에 따르면 M -문장 T 에 대응하는 L -문장은 Q' 인 경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L 에서 M 으로의 번역불확정성에 해당되는데 이때 M 을 고려에서 제외하고 두 L -문장 Q 와 Q' 만을 생각하면 우리는 L 에서의 한가지 치환을 얻은 셈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불확정성이 성립한다면 치환논제도 성립한다. 이런 이유로 Quine은 번역불확정성이 번역의 속성이 아니라 언어 자체의 속성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때 서로 대응하는 두 L -문장 Q 와 Q' 은 아무리 느슨한 의미에서도 서로 동치가 아니다. Q 와 Q' 은 단순동치(materially equivalent)일 수도 없다. 즉, Q 와 Q' 은 서로 진리치가 달라야 한다. 만일 A 라는 M -화자는 S_1 을 통하여 L 을 배웠고 B 라는 M -화자는 S_2 를 통하여 L 을 배웠다면 A 와 B 는 각각 Q 와 Q' 의 진리치에 대하여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을 것이다. L -문장 Q 에 대해서만 말한다면 A 는 Q 가 참이라고 여기는데 B 는 Q 가 거짓이라고 여기고 있을 것이다. 번역불확정성이 치환논리계를 함축한다는 것을 밝힐 우리는 이 상황을 더욱 간단히 여기할 수 있다. 우리는 A 와 B 가 L 에서 M 으로의 번역편람에 의해서 L 을 배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필요없이 이 두사람이 그냥 L -화자들이라고 여길 수 있다. 그렇다면 번역불확정성이 함축하는 바는 어떤 언어의 두 화자가 그 언어의 문장에 대해서 (더 정확히 말한다면 어떤 문장의 진리치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으로 귀착된다. 그러나 이것은 진부한 얘기가 아닌가? 이것이 번역불확정성이 말하는 것의 전부라면 번역불확정성은 아주 시시한 것이 되고 만다.

위와 같은 번역불확정성을 제대로 나타내려면 몇가지 단서가 붙어야 한다. 첫째, 이런 상황은 L -화자들 언어공동체 공통의 경향성, 공통의 관행에 호소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이점은 앞에서 인용한 치환논제의 조건(a)로부터 곧바로 얻을 수 있다. A 나 B 가 언어공동체 공통의 경향성과 부합할 수 없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라면 그는 정당한 L -화자가 아닌 것이다. 둘째로 이런 의견차이가 두 사람의 경험적 배경의 차이에 호소해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어서도 안 된다. Q 의 진리치에 대한 A 와 B 의 의견차이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적 증거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거라면 이것은 Quine이 의도한 불확정성이 아니다. 물론 다른 두 사람의 경험적 배경이 모든 면에서 똑 같을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Q 의 진위여부에 관한 모든 경험적 증거에 대해서 A 와 B 가 같은 견해를 갖는다는 것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번역불확정성 논제가 말하는 바는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 L -언어를

32) 이하의 논의는 Demmett, "The Significance of Quine's Indeterminacy Thesis" in Dummett [1978]에서 온것.

정확히 말하는 두 화자, 즉 L -언어 공동체 대다수 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언어적 경향성과 잘 부합하는 언어적 경향성을 가진 두 화자 A와 B가 그들의 경험적 배경이 다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한 L -문장 Q의 진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³³⁾

Dummett은 이런 상황에서 두사람은 의견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찾아내서 그 성격을 밝히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³⁴⁾ 우선 A와 B에게 자신들의 판단의 근거를 묻는다면 그들이 제시하는 근거에서 모종의 추리 내지 논증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Q가 관찰문장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그들이 모든 L -화자들이 받아들이는 형태의 논증을 가지고 상대방이 잘못임을 보여줄 수도 없을 것이다. Dummett은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한가지 가정적 상황을 제시한다. L -언어공동체는 어려서부터 직관주의 논리학을 통하여 사고하도록 배우며 자란다고 하자. 또 그들은 반례에 의한 논박을 정당한 논증의 하나로 배운다. 이런 상황이라면 고전논리에 따르면 타당하지만 직관주의 논리에 따르면 타당하지 않은 중간영역의 논증들이 발생할 여지가 생긴다. A는 $P \rightarrow Q$ 와 $\neg P \rightarrow Q$ 라는 두 전제로부터 Q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B는 이런 딜레마 형태의 논증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그 한 예가 될 것이다. 이때 B는 $P \rightarrow Q$ 와 $\neg P \rightarrow Q$ 가 둘다 참이면서 Q가 $(\exists x)Fx$ 의 형식을 가진 논증을 만들어낸다. L -화자들에 공통된 언어적 관행은 $(\exists x)Fx$ 를 참이라고 여기기를 요구하지도 않고 거짓이라고 여기기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이런 예가 만들어지면 A와 B의 의견차이는 결국 존재문장이 주장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에 관한 차이였음이 밝혀지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Q에 대한 A와 B의 판단은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경향성에 (물론 이런 개인적인 경향성이 L -화자 공통의 경향성과 상충하지는 않지만)기인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L -화자들에게 공통적인 언어적 경향성은 위와 같은 경우에 Q가 참이라고 여기지도 않고 거짓이라고 여기지도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번역불확정성 문제에 관한 어떤 사실을 끄집어낼 수 있다. A와 B가 S_1 과 S_2 라는 두 번역편람에 의해서 L 을 배운 사람들이라고 가정해보자. 이런 경우에 Q의 진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A와 B는 모든 M -화자들의 언어적 경향성과 부합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S_1 에 따르면 Q는 T로 번역되는데 모든 M -화자에게 공통된 경향성은 T가 참이라고 여기기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편람 S_2 에 따르면 Q는 T'으로 번역되는데 모든 M -화자들에게 공통된 경향성은 T'이 거짓이라고 여기기를 요구할 것이다. 그렇다면 두 편람 S_1 과 S_2 는 모든 L -화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경향성을 M -화자들의 경향성과 대응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편람은 M -화자들의 “언어적 경향성 전체와 양립”³⁵⁾하지 못하므로 정확한 편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L 에서의 치환의 존재가 L 에서 M 으로의 번역의 불확정성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만일 치환논제가 옳다면 모든 언어는 그 개개 문장들의 의미에 있어서 모종의 의미론적 불확정성을 안고 있다. 다시 말해서 치환논제는 한 언어 내에서 개개 문장들의 의미론적 불확정성을 주장한다. 따라서 우리의 결론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의미의 불확정성이 번역의 불확정성을 함축하지는 않는다.³⁶⁾

그러나 지금까지 소개한 Dummett류의 논의는 Quine에게 공평치 못한 전제를 깔고 있다. 의미의 불확정성이 번역의 불확정성을 함축하지 않는다는 것은 언어 L 을, 그것의 모든 이론문장들까지도 일의적으로 M 으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때에 M 도 또한 의미론적 불확정성에 시달리겠지만 L 로부터 M 으로의 번역은 확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Dum-

33) Dummett, *ibid.* p. 390

34) Dummett, *ibid.* pp. 390~391

35) Quine[1960], *Word and Object*, p. 27

36) Dummett, *op. cit.*, pp. 395~400

mett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Quine의 분석/종합불가분 논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었다³⁷⁾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Quine의 번역론 전체는 분석문장과 종합문장이 구별될 수 없다는 전체에 토대를 두고 있다. 분석문장과 종합문장이 구별될 수 없다는 것은 L -화자들의 어떤 문장에 대한 동의 내지 부인이 어디까지 문장의 의미에 기인하는 것이며, 어디까지 세계에 대한 믿음에 기인하는 것인지를 가려낼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번역이 근거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 L -화자들의 행태적 경향성들은 이 점을 가려주지 못한다. L -화자들은 " $P \vee \neg P$ "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검은 개가 있었다"는 문장에 대해서도 언제나 긍정할 것이다.³⁸⁾ 의미/믿음이 불가분적인 것이라면 L -언어의 번역문제는 L -화자들에게 어떤 믿음을 부여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마련이다. 물론 L -진리함수와 L -관찰문장에 대해서는 L -화자들이 우리만큼은 합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이 대목에서는 자비원리가 자연스럽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L 의 이론문장들을 번역하는 경우에 L -화자들이 세계에 대해서 참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리라는 가정은 설득력이 약해진다. 우리 자신의 세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조차 우리는 그 진위를 의심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점은 분명하다. 여기서 이론문장의 의미론적 불확정성을 넘어서는 다른 하나의 불확정성, 즉 번역불확정성이 발생한다. 여기서 Quine의 의미/믿음 불가분 논제 자체에 대해서 따지지는 않겠다. 하지만 이 논제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에 의미의 불확정성이 번역불확정성을 함축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Quine이 강조하고 있는 바 과학의 명제들이 개별적으로 경험적 증거와 만나지 않는다는 점은 전체론의 중요한 통찰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복잡한 예를 들지 않더라도 과학 이론이 담고 있는 문장은 지속문장인데 비해 우리의 관찰이나 경험의 보고는 계기문장을 빌어서 표현된다는 사실이 이점을 분명히 드러내 준다. 과학이론을 구성하는 문장 하나가 하나의 관찰문장을 함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과학이론의 경험적 내용을 어떻게 추출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³⁹⁾ 단지 과학이론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문장들은 다른 문장들과의 연계(interconnection)를 통해서만 경험적 증거와 만난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또 관찰 귀결을 함축하는 단위로서의 이론은 얼마나 포괄적이어야 하는가라는 물음도⁴⁰⁾ 전체론의 통찰 자체로부터 어렵지 않게 대답될 수 있다. 어떤 이론을 이루고 있는 문장들은 어떤 부분집합 U 가 있어서 전체이론을 수정하기를 요구하는 관찰문장이 U 의 원소인 문장들만을 수정하기를 요구하거나, 그러한 수정의 U 의 문장들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면 U 는 독립적으로 경험적 증거를 갖는 단위가 된다. 이때에 U 의 부분집합 중에는 U 와 같은 성격을 갖는 문장들의 집합이 없다면 U 는 독립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U 가 우리의 과학이론 전체라고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Quine은 과학이론이라는 단위가 "상당한 정도로 통합된, 세계에 대한 하나의 체계"라고 생각한다. 그는 과학이론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는 이유로서 모든 과학의 공통의 요소로서 논리학, 그리고 대부분의 과학의 공통의 요소로서 수학이라는 두 요소가 과학이론에 어떤 통합을 이루어준다고 믿는 듯하다.⁴¹⁾ 그러나 나는 생물학의 어떤 이론이 어떤 관찰에 의해 수정되기를 요구받을 때 낙하법칙을 수정해서 그 반대관찰(adverse observation)을 설명해낼 수 있으리라고는 믿지 않는다. 어쨌든 위에서 말한 U 가 얼마나 포괄적인가 하는 문제와는 별도로 전체론은 지지될

37) Dummett, *ibid.* p. 409f.

38) Quine[1960], p. 66.

39) 이 문제에 대해서는 Quine, "Empirical Content" in Quine[1981]; 그리고 Quine, "On Empirically Equivalent Systems of the Word" in *Erkenntnis*, 9.

40) Quine, "On Empirically Equivalent Systems of the World", *op. cit.* p. 314

41) Quine, *ibid.*, p. 314

수 있다. 물론 U, 즉 하나의 독립된 이론을 얼마나 포괄적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반대관찰에 대한 수정가능한 폭은 좁아진다. 그러나 U가 개별적인 문장들로까지 좁아질 수 없다는 것이 앞서 말한 전체론의 통찰이고 보면, 경험적 증거에 대한 이론의 미결정성은 그 정도가 어떠하냐와는 별도로 이의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물론 이런 선에서 받아들여진 미결정성이 Quine이 주장한 미결정성과 같은 것인가하는 의문은 남는다.⁴²⁾ 나는 미결정성 논제를 그 범위에 있어서, 즉 수정가능한 폭의 문제에 있어서 매우 제한된 형태로 받아들여기를 제안하고 있는 셈인데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그치기로 하자.

IV.

지금까지 우리는 Quine이 번역불확정성을 옹호하는 논증으로 제시한 몇가지 논증들을 검토하였다. 그가 *Word and Object*에서 보여주고 있는 논증은 지시불가해성을 보이는 논증이었는데 우리는 지시불가해성이 단어의 지시에 대한 불확정성임을 확인하고 따라서 그것 자체가 문장의 진리치에 있어서의 불확정성으로 여겨질 수는 없음을 보이고 나서, 단어의 지시에 있어서의 치환이 가능한 것은 그 단어를 포함한 문장의 다른 부분이 조정됨으로써 지시의 변화를 보상할 때 뿐이라는 것을 보임으로써 지시의 불가해성이 문장의 진리조건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므로 지시의 불가해성은 그 자체를 하나의 불확정성으로 여기지 않는 한 문장의 진리에 대한 불확정성으로 가는 논증이 될 수 없다. 한편 의미의 문제에 있어서 문장의 우위라는 생각이 갖는 함축을 충분히 고려하면 지시의 불가해성은 정확한 번역을 위한 조건에 포괄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 필자의 의도의 하나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Quine 자신도 같은 생각이 “On the Reasons for the Indeterminacy of Translation” 및 그 이후의 글에서 암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번역불확정성에 대한 다른 논증을 제시하면서 지시불가해성의 지위에 대해서 *Word and Object*에서와는 다른 견해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한 필자의 짐작은 Quine이 Davidson에게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 흔적은 “On the Very Idea of a Third Dogma”⁴³⁾를 비롯한 그의 몇몇 글들에서 찾을 수 있다. 또 우리는 Quine이 번역불확정성 논제와 동등한 것이라고 제시하는 치환논제가 번역불확정성으로부터 도출될 수는 있지만, 치환논제 자체만으로부터 번역불확정성이 나올 수 없다고 논증하였다. 치환논제=이론미결정성=의미의 번역불확정성이라는 동등한 세 논제는 분석/종합 불가분성 내지 의미/믿음 불가분성이라는 다른 논제와 연연될 때에만 번역불확정성을 함축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 논제들과 그 근거를 이루고 있는 수정가능성 논제는 원칙적인 주장에 비하여 실제로 그 폭이 매우 제한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42) “On the Reasons for the Indeterminacy of Translation”에서 Quine은 미결정성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논제라고 보면서도 미결정성의 폭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43) Quine [1981]. p.38f.

참고문헌

- Chomsky, N., "Quine's Empirical Assumptions" in Davidson and Hintikka[1969]
- Davidson, D., "The Inscrutability of Reference" in Davidson[1984]
- Davidson, [1984], *Inquiries into Truth and Interpretation*, Clarendon Press
- Davidson, D. and Hintikka, J. [1969], *Words and Objections*, Reidel Pub.
- Dummett, M., "What Is a Theory of Meaning?" in Guttenplan[1974]
- "The Significance of Quine's Indeterminacy Thesis" in Dummett[1978]
- Dummett, M. [1978], *Truth and Other Enigmas*, Harvard Univ. Press
- Guttenplan, S. [1974], *Mind and Language*, Clarendon Press
- Harmann, G., "An Introduction to 'Translation and Meaning'. Chapter 2 of *Word and Object*" in Davidson and Hintikka[1969]
- "Meaning and Theory" in Shahan and Swoyer[1979]
- Hintikka, J., "Behavioral Criteria of Radical Translation" in davidson and Hintikka[1969]
- Mohanty, J. N., "On the Roots of Reference : Quine, Piaget, and Husserl" in Shahan and Swoyer[1979]
- Putnam, H., "The Refutation of Conventionalism" in Putnam[1975]
- Putnam[1975], *Mind, Language and Reality*, Cambridge Univ. Press
- Quine, W. V. "Two Dogmas of Empiricism" in Quine[1953]
- "Identity, Ostension, and Hypothesis" in Quine[1953]
- "Speaking of Objects" in Quine[1969]
- "Ontological Relativity" in Quine[1969]
- "Epistemology Naturalized" in Quine[1969]
- "On the Reasons for the Indeterminacy of Translation" in *Journal of Philosophy*, vol. 67, 1970.
- "On Empirically Equivalent Systems of the World" in *Erkenntnis* 9, 1975
- "indeterminacy of Translation Again in *Journal of Philosophy*, vol. 84, 1987
- "Truth by Convention" in Quine[1960]
- "Things and Their Place in Theories" in Quine[1981]
- "Empirical content" in Quine[1981]
- "Use and Its Place in Meaning" in Quine[1981]
- "Five Milestones of Empiricism" in Quine[1981]
- "Facts of the Matter" in Shahan and Swoyer[1979]
- "The Nature of Natural Knowledge" in guttenplan[1975]
- "Mind and Verbal Disposition" in Guttenplan[1975]
- "Replies" in Davidson and Hinikka[1969]
- Quine[1953], *From a Logical Point of view*, Harper and Row Pub.
- Quine[1960], *Word and Object*, MIT Press
- Quine[1966], *The Ways of Paradox and Other Essays*, Harvard Univ. Press
- Quine[1969], *Ontological Relativity and Other Essays*, Columbia Univ. Press
- Quine[1973], *The Roots of Reference*, Open court
- Quine[1981], *Theories and Things*, Harvard Univ. Press
- Searle, J., "Indeterminacy, Empiricism, and the First Person" draft for *Journal of Philosophy*
- Shahan, R. W. and Swyer, C. 1979] *Essays on the Philosophy of W. V. Quine*, Univ. of Oklahoma Press
- Smart, J. J. C., "Quine's Philosophy of Science" in Davidson Hintikka[1969]
- 김여수, "환원적 분석" 철학연구
- 이명현, "Quine의 원초적 번역의 불확정성론 : 그 비판적 검토" 철학연구, 1974.